

마야의 경전 『포폴 부』에 구현된 심층생태학적 유토피아*

전용갑** · 황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경희대학교)

❖ 국문초록

본 논문은 마야인의 성서라고 일컬어지는 『포폴 부』를 심층생태학(Deep ecology)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작업으로 준비되었다. 기존의 『포폴 부』 연구가 신화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고 무엇보다 마야의 창조 신화에 대한 우화적 요소를 소개하는 형태로 전개되어온 만큼 『포폴 부』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찾기 어려운 생태학점 관점에서 마야-키체의 경전을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신화에 가려진 포폴 부의 민낯을 찾아가는 궤적이 될 것이다. 생태학 혹은 심층 생태학적으로 작품을 고찰하고자 한 것은 무엇보다 『포폴 부』가 다른 문화권의 창조 신화와는 층위가 다른 생태인식을 배태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심층생태학은 기존의 환경운동을 표층생태학이라고 비판하면서 태동한 개념으로, 자연을 대하는 인간 자신의 도덕적, 윤리적 변화를 촉구하는데, 이 때문에 필연적으로 ‘형이상학적’ 차원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렇듯 심층 생태학은 무엇보다 근대 이후의 인간중심주의, 이분법적 사고, 이성중심주의를 탈피할 것을 주창한다. 마야의 『포폴 부』도 이러한

* 본 논문은 2014년 8월 25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주최 학술대회 <한중남미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제협력: 학제/세대간 융합 환경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제1저자

*** 교신저자

인식을 담아낸 텍스트로 심층생태학적 분석을 통해 이 작품에 내재한 유토피아적 세계관을 살펴보았다.

주제어 : 포폴 부, 생태학적 관점, 심층생태학, 마야

1. 들어가는 말

- 심층생태학과 유토피아

자연(自然)은 문학이 탄생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다루어온 오랜 소재이지만 대부분 현실과 유리된 목가적 대상이었거나 혹은 반대로 인간이 현실 속에서 숙명적으로 마주쳐야 할 극복과 투쟁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반면 자연이 ‘보호되어야 할’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20세기 중반 이후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이 국지적 차원을 넘어 전 지구적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자연을 담아내는 문학의 내용과 형식에도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특히 19세기 중반 생물학에서 분기된 ‘생태학’의 개념이 이 시기 자연과학적 경계를 넘어 인간과 자연의 문제를 보다 근원에서부터 성찰하고자 하는 철학적 패러다임으로 확대되면서 1990년대 이후에는 ‘자연보호’를 주제로 한 문학에도 ‘생태학적 인식’이 저변을 이루기 시작했다.¹⁾

1) 강규한에 의하면 자연과학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생태학’은 1960년대 이후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그 패러다임이 인문, 사회과학으로 확장되기 시작하였으며 문학은 비교적 늦은 시기인 1990년대에 이르러 이를 수용하였다.

“생태학이라는 개념이 문학 분야에 도입되기 시작한 일차적인 배경에는 이전 시대와는 달리 환경위기의식이 급증하고 생태학적 관심이 고조되었던 1960년대 이후의 시대 분위기가 자리잡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전면적으로 부각된 핵 위기,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치명적 독성물질의 급격한 증대, 생존에 필요한 깨끗한 물과 공기의 부족, 지구 전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제앙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대됨에 따라 당시 생물학의 한 분야를 지칭하던 생태학이라는 용어와 함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널리 유포되어 갔다. 1970년대 이후부터 철학, 역사학, 사회학, 종교학 등 제반 인문학의 ‘녹색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갔는데, 문학의 경우 타 분야의 ‘녹색화’가 진행되는 상당 기간 동안 이와는 무관한 채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관찰된다. 특히 1960, 70년대의 인권운동과 여권신장운동이 문학과 문학연구에 끼친 지대한 영향에 비한다면 1990년대

주지하다시피, ‘생태학(Ökologie)’이라는 용어는 1866년에 독일의 동물학자인 에른스트 헤켈(Ernst Haeckel)이 처음 사용했는데, 헤켈은 ‘집’ 또는 ‘살기 위한 공간’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Oiskos와 ‘연구’라는 의미의 Logos를 결합해 만든 이 개념을 “자연이라는 가정(家庭)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했다. 즉 “모든 생물체가 자연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집에 모여 살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고의 표현이며 이는 “여러 다른 종들과 그들의 생활공간을 보존하는 것이 자신이 속한 종의 보존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오늘날 보편화된 생태학적 인식의 출발점이 된다.²⁾ 따라서 생태학은 근대 이후 산업화와 자본주의 발전을 주도해 왔던 인간중심적(antropocéntrico)인 사고-인간이 자연을 대상화하는-는 물론, 더 나아가 인간/ 자연, 생물/ 무생물 등을 구분하는 기존의 이분법적, 이성중심적 사고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형이상학적 패러다임으로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생태는 ‘환경’과는 유사하면서도 이질적인 의미를 지닌다. 김용민은 ‘환경’이라는 말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라는 뜻인 만큼 그 자체로 인간중심적인 관점을 전제하고 있는데 반해, ‘생태’라는 개념은 인간도 생태계의 일부이며 모든 유기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물중심주의적(혹은 생물평등주의적) 인식을 담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환경’이라는 개념에는 중심을 상정한 구심적 세계관, 인간과 주변세계를 나누는 이원적 관점이 담겨 있는 반면, ‘생태’ 개념에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관계적 인식’, 유기적이며 총체적인 세계 인식, 모든 생물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는 일원론적 인식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³⁾ 정경민 역시 ‘환경’이라는 용어 속에는 애초에 인간을 중심에 두고 자연과 우주 생명을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주변적, 종속적인 객체적 대상으로 파악하는 근대의 인간중심주의적인 사고가 토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존재 상호간

에 들어와서야 공식적으로 시작된 문학연구의 ‘녹색화’는 아직 미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강규한, 「생태비평. 자연문학의 변주인가, 문학연구의 새로운 지평인가」, 『안과 밖』 22호, 2007, 300-301쪽.

2) 김용민, 『생태문학. 대안사회를 위한 꿈』, 책세상, 2003, 23-25쪽.

3) 위의 책, 81쪽.

의 관계성을 중시하는 ‘생태’라는 말과는 구분된다고 말한다.⁴⁾ 따라서 ‘생태문학’은 ‘환경문학’과는 차이가 있는 개념이다. 즉, 환경문학이 인간중심적 관점에서 환경파괴나 자연훼손의 실상을 경고하는 문학을 가리키며 따라서 다분히 고발문학적 특성을 지니는 데 반해 ‘생태문학’은 생태계 위기의 원인을 좀 더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문학을 말한다. 다시 말해 생태문학은 환경문학보다 좀 더 형이상학적인 태도를 취한다.⁵⁾ 고발문학적 성격의 ‘환경문학’이 환경문제가 불거진 최근의 작품들에서 어렵지 않게 그 사례들을 모을 수 있다면, ‘인간과 자연의 합일’이라는 형이상학적 가치를 담은 ‘생태문학’의 정신은 오히려 근대화, 산업화 이전의 과거 속에서 찾는 것이 더 수월할 수 있다.

한편 생태학은 20세기 중반 이후 철학, 역사학, 사회학, 정치학 등 다른 학문 분야와 접목하면서 생태철학, 인류생태학, 사회생태학, 정치생태학 등 여러 분야로 나누어지지만 그 정확한 개념적 이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표층생태학과 심층생태학, 사회생태학의 세 가지를 비교해 보는 것이 수월하다.

심층생태학이란 용어는 1972년 노르웨이의 철학자 아네 네스(Arne Naess)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네스는 생태학을 표층생태학과 심층생태학으로 구분하여 표층생태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오염이나 자원의 고갈과 같은 환경파괴적 행위와 싸워나가는 소극적 활동인 반면, 심층생태학은 지금까지 묵시적으로 통용되어온 인간과 사회의 기본 전제들에 대한 근본적 수정을 요구하는 더 급진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에 비해 북친(Murray Bookchin)이 제기한 사회생태학은 오늘날의 생태 위기는 다름 아닌 인간 사회에 내재된 불합리성의 연장이기 때문에 정치적 억압이나 경제적 착취와 같은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생태위기를 풀어나가는 열쇠가 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북친의 사회생태학은 생태 중심주의를 주장하는 심층생태학이 지나치게 신비적이며 비현실적이어서 실천적 면모를 상실하고 있다고 비판한다.⁶⁾

4) 정경민, 「생태문학 연구의 동향과 전망」, 『한국문화연구』, Vol. 11, 2006, 398쪽.

5) 김옥동, 『생태학적 상상력』, 나무심는사람, 2003, 7-38쪽.

6) 박주식, 「생태비평」, 『안과 밖』 14호 2003, 199쪽.

다시 말해 심층생태학은 기존의 환경주의, 환경운동을 표층생태학이라고 비판하면서 태동한 개념이다. 정책적, 제도적 차원의 환경운동은 여전히 자연을 대상화한 인간중심적, 이분법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단기적·임시적 방편으로, 이러한 자세로는 생태계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심층생태학은 무엇보다도 자연을 대하는 인간 자신의 도덕적, 윤리적 변화를 촉구하는데, 이 때문에 필연적으로 ‘형이상학적’ 차원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근대 이후의 인간중심주의, 이분법적 사고, 이성중심주의를 탈피할 것을 주창한다.

머레이 북친(Murray Bookchin)의 주장처럼 심층생태학은 표층생태학(환경)이나 사회생태학에 비해 현실에서 구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신비적이고 비현실적인’ 인식이다. 그리고 바로 이점이 심층생태학의 유토피아적 속성을

7) 한편 심층생태학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 ① “The well-being and flourishing of human and non-human life on Earth have value in themselves are independent of the usefulness of the non-human world for human purposes.”
- ② “Richness and diversity of life forms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these values and are also values on themselves.”
- ③ “Humans have no right to reduce this richness and diversity except to satisfy vital needs.”
- ④ “The flourishing of human life and cultures is compatible with a substantially smaller human population.”
- ⑤ “Present human interference with the non-human world is excessive, and the situation is rapidly worsening.”
- ⑥ “Policies must therefore be changed. These policies affect basic economic, technological, and ideological structures. The resulting state of affairs will be deeply different from the present.”
- ⑦ “The ideological change will be mainly that of appreciating life quality (dwelling in situations of inherent value) rather than adhering to an increasingly higher standard of living. There will be a profound awareness of the difference between bigness and greatness.”
- ⑧ “Those who subscribe to the foregoing points have an obligation directly or indirectly try to implement the necessary changes.” - Arne Naess, “The deep ecological movement; some philosophical aspects”, *Deep Ecology for the Twenty-First Century*, George Sessions (ed.), Boston, Shambhala, 1995, p. 68.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유토피아(utopia)’란 ‘어디에도 없는 곳(ningún sitio)’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그 어원 자체에 현실에서 존재할 수 없는 ‘이상향(理想郷)’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마야인의 성서라고 일컬어지는 『포폴 부 *Popol Vuh*』⁸⁾를 심층생태학적 인식을 담은 유토피아 담론으로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작품에 서술된 인간의 기원과 지하세계의 모험 등 몇몇 단편(斷片)의 저변에 드리워진 심층생태학적 요소들을 살펴볼 것이다.

II. 『포폴 부』의 심층생태학적 인식

1550년 경⁹⁾ 한 익명의 마야-키체족 작가에 의해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포폴 부』의 유래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18세기 초반 도미니크 수도회 성직자인 프란시스코 히메네스(Francisco Ximénez, 1666-1729)에 의해 스페인어로 옮겨짐으로써 유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⁰⁾

『포폴 부』에 기록된 천지창조의 묘사와 기독교 창세기의 유사성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책의 원저자가 -서구 선교사들에 의해 전해진- 기독교 교리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저명한 역사가 벵크로프트(Hubert Howe Bancroft)는 이 책이 신대륙의 원주민 사상을 담은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며 이를 부정하고 있다.¹¹⁾ 필자도 벵크로프트의 견해에 동의하며 나아가 『포폴 부』를 마야의 우주관을 담아낸 소중한 자료이자 생태학적 창조신화로 간주하여 이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에서는 최초의 바다와 하늘로부터 세상과 피조물이 창조되는 과정을, 2부에서는 두 쌍의 쌍둥이들의 활동, 특히

8) 본고에서는 다음의 책(*Popol Vuh*,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2008)을 사용하기로 하며 본문을 인용할 때 쪽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9) 1554년에서 1558년 사이로 추정된다.

10) 『포폴 부』의 원전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경로로 전달되어 번역되었는지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본고에서는 범용적으로 수용되는 이론을 따르기로 한다.

11) Adrián Recinos, “Introducción”, *Popol Vuh*,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2008, pp. 15-16.

지하세계 시발바(Xibalbá)의 나쁜 신들을 물리치는 우나푸(Hunahpú)¹²⁾와 익스발란케(Ixbalanqué)의 무용담을, 그리고 3부와 4부에서는 옥수수 인간의 창조, 그리고 키체족의 기원과 역사를 각각 다루고 있다.

1. 창조 신화적 관점에서 바라본 『포폴 부』

창조 신화는 대체적으로 특정한 구조를 지니는 경향이 있다. 즉 태초의 극심한 혼돈(카오스)의 시간을 보낸 후 질서와 조화(코스모스)의 세계로 이행된다는 것인데 본고에서 살펴볼 『포폴 부』도 이와 유사한 형태를 지닌다. 『포폴 부』에 의하면 창조신들인 ‘테페우와 구쿠마츠(Tepeu y Gucumatz)’, 그리고 ‘우라칸(Huracán)’이라 불리는 ‘하늘의 심장(Corazón del Cielo)’은 “고요한 바다와 광활하게 펼쳐진 하늘만이 존재하는”¹³⁾ 태초의 상태에서 안개와 구름과 먼지, 그리고 땅과 산, 계곡, 삼나무와 소나무 등을 먼저 창조한다. 그리고 사슴, 새, 재규어, 뱀과 같은 동물들을 만들었으나 이들이 자신들을 “섬기지도, (자신들에게) 기도할 줄도 몰랐기 때문에”(27) 좀 더 나은 존재인 인간을 만들기로 결정한다. 처음 신들이 선택한 것은 흙으로 빚은 인간이었다.

흙, 진흙으로 (인간의) 살을 만들었다. 그러나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금방 부서지고 호물거리는 데다 힘이 없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쓰러져버리곤 했다. [...] 처음에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 이해하지를 못했다. [...] 그래서 자신들의 작품인 피조물을 부수어 없애버렸다. (27-28)¹⁴⁾

12) 마야-키체어를 스페인어로 옮긴 만큼 h에 음가를 부여할지 스페인어처럼 묵음으로 쓸지 고민하였으나 본고는 스페인어 텍스트를 기초로 하는 만큼 스페인어 발음 표기 기준을 따르기로 한다. 마야-키체어 발음에 가장 가까운 것은 완아파(WAN ah pwa)로 표기하는 것이다. 마야-키체어 발음에 관한 참고사항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mythome.org/mayanames.html>

13) Adrían Recinos(ed.), *Popol Vuh*,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2008, pp. 23. 이후 *Popol Vuh* 원문 인용은 본문 중 쪽수만 표기함.

14) “De tierra, de lodo hicieron la carne(del hombre). Pero vieron que no estaba bien, porque se deshacía, estaba blando, no tenía movimiento, no tenía fuerza, se caía [...]Al principio hablaba, pero no tenía entendimiento.[...]Entonces desbarataron y deshicieron su obra y su creación.”

첫 번째 인간 창조에 실패한 신들은 한 쌍의 늙은 점쟁이인 익스피야콥(Ixpiyacoc)과 익스무카네(Ixmucané)에게 자문을 구한다. 옥수수 낱알(granos de maíz)과 치테(tzité) 열매를 가지고 점을 친 점쟁이들로부터 인간은 나무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괘를 듣자마자 창조자 신들은 “그렇게 이루어져라”고 말하였고, 즉시 세상은 나무 인간(el hombre de madera)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 즉시 나무로 인형이 만들어졌다. 그들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인간처럼 말하며 지상(地上)에 정착해서 살았다. 짐차로 딸들과 아들들을 낳아 개체수가 증가했다. 하지만 영혼과 지능도 갖추지 못해 자신을 만든 창조자, 조물주에 대해 기억하지 못했다. 그들은 정처 없이 걷거나 기어 다녔다. [...] 곧 나무 인형은 부서지고 파멸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 ‘하늘의 심장’이 물난리를 일으켰고, 큰비가 나무 인간들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 이들의 후예가 오늘날 숲에 살고 있는 원숭이라고 한다. (29-32)¹⁵⁾

이처럼 나무로 만든 인간들 역시 흙으로 빚은 인간과 다를 바 없었으므로, 신들은 - 책의 3부에서 - 다른 재료로 인간을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옥수수(maíz)이다. 몇몇 동물들 - 산고양이(gato de monte), 코요테(coyote), 잉꼬(cotorra), 까마귀(cuervo) - 이 동이 트기 전 창조자 신들을 위해 노란 옥수수와 하얀 옥수수를 가져왔고 그 맛에 반한 신들은 동물들이 이 작물을 구했던 장소인 파힐(Paxil)로 가서 4명의 인간을 만들기에 이른다.

15) “Y al instante fueron hechos los muñecos labrados en madera. Se parecían al hombre, hablaban como el hombre y poblaron la superficie de la tierra. Existieron y se multiplicaron; tuvieron hijas, tuvieron hijos los muñecos de palo; pero no tenían alma, ni entendimiento, no se acordaban de su Creador, de su Formador; caminaban sin rumbo y andaban a gatas[...]En seguida fueron aniquilados y deshechos los muñecos de palo, y recibieron la muerte.[...]Una inundación fue producida por el Corazón del Cielo; un gran diluvio se formó, que cayó sobre las cabezas de los muñecos de palo.[...] Y dicen que la descendencia de aquéllos son los monos que existen ahora en los bosques.”

노란 옥수수과 하얀 옥수수로 살을 만들었다. 옥수수 반죽으로 인간의 팔과 다리를 만들어 붙였다. 우리 선조들의 살은 옥수수 반죽으로만 이루어졌고, 그렇게 네 명의 인간이 창조되었다. (104)¹⁶⁾

그리스 신화 『신통기』¹⁷⁾나 기독교 성경의 <창세기>¹⁸⁾에서 ‘인간의 형상을 흙으로 빚었다’는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간의 질료적 기원을 자연에서 찾는 것은 창조신화에서 드물지 않은 사례이다. 『포폴 부』에서 흙은 나무와 함께 인간의 ‘불완전성’을 함의하고 있다는 점이 독특해 보이지만 이는 메소아메리카 문화권의 상징적 작물인 옥수수의 대표성을 부각하기 위한 상대적 평가 절하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이 옥수수로 만들어졌다는 믿음 역시 인간이 자연에서 비롯되었다는, 즉 인간이 곧 자연이라는 세계관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순수 자연물질에서 인간이 비롯되었다는 이러한 사고는 인접한 아스테카(Azteca) 문명의 인류 창조신화보다 한층 더 ‘생태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다. 아스테카 신화에서 인간은 물고기 인간의 뱃가루에 ‘신들의 피’가 섞여 만들어지고¹⁹⁾ 이는 불완전한 인간에 신성성을 주입해야 온

16) “De maíz amarillo y de maíz blanco se hizo su carne. De masa de maíz se hicieron los brazos y las piernas del hombre. Únicamente masa de maíz entró en la carne de nuestros padres, los cuatro hombres que fueron creados.”

17) 신통기 560-612행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진흙으로 만들고 아테나는 그 진흙 형상에 숨결을 불어넣는다.”

18)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19) 『태양의 제국』과 『멕시코의 역사』에 기록된 아스테카의 현생인류 창조신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마지막 선세계에서 홍수로 인해 물고기로 변한 사람들의 뼈를 회수하기 위해 케찰코아틀이 므틀란이라는 지하세계로 내려간다. 그리고 지하세계의 교활한 죽음의 신인 므틀란테쿠틀리(Mictlantecutli)의 온갖 방해책동을 극복하고 물고기 인간의 뼈를 지상으로 가져온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므틀란테쿠틀리와 부하들이 파 놓은 함정에 케찰코아틀이 빠지고 그 바람에 뼈들이 산산조각으로 흩어졌는데, 바로 이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의 체격이 모두 다르게 된 것이다. 지하세계를 탈출한 케찰코아틀은 뼈들을 ‘기원(起源)의 장소’로 가져갔고, 그곳에서 뱀의 형상을 한 늙은 여신 시우아코아틀이 뼈를 갈아 밀가루처럼 만든 후, 특별한 단지에 담았다. 그리고 신들이 단지 들레에 모여 자신들의 피를 가루가 된 뼈 위에 떨어뜨림으로서 현생인류가 탄생하게 되었다. - 칼 토베, 『아스테카 마야신화』, 이웅균·천경효 공역, 범우사, 1998, 83-86쪽.

전한 인간이 된다는 의미로 유추할 수 있는 만큼 마야의 인간창조 신화가 심층생태학적 세계관에 더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메소아메리카 문화권의 주요 작물의 하나였던 옥수수는 마야인들에게 인간창조를 위한 ‘자연의 질료’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세상을 움직이는 ‘주술적 힘’으로 작동하였으며 더 나아가 ‘세상 그 자체’를 의미했다는 점에서 ‘옥수수 인간’의 의미는 다른 문화권의 인간창조 신화보다 더 확장된 생태학적 사고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풀어 설명하자면, 옥수수를 주식으로 삼았던 마야에서 옥수수 경작은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었고 이는 이 작물의 풍작을 바라는 주술적 염원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따라서 마야의 신계에는 옥수수의 신인 움 카스(Yum Kaax)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 신은 생명의 근원인 비의 신 차크(Chaac)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세상의 생육을 관장했던 것이다. 게다가 옥수수는 확장된 의미에서 세계 자체를 상징하기도 한다. 이렇듯 마야인들의 옥수수에 대한 근친성은 그들이 남긴 조각과 그림으로도 전해지는데,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의 이사파(Izapa) 유적의 석판에는 『포폴 부』에 등장하는 ‘세계의 창조’와 유사한 이야기-신들이 모여 사람과 동물을 창조하고 땅에서 나무가 자라 하늘을 떠받치며 신들이 밭을 만드는 장면 등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는 방향을 가늠하고 자로 사방을 나누어 밭을 만들고 씨를 뿌려 곡식을 키움으로써 천지창조의 완성을 이루는 『포폴 부』의 한 대목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옥수수의 재배가 세계의 완성에 중요한 요소였음을 추측케 한다.

하늘과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네 조각으로 나뉘어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줄자를 가져와 네 개의 각도, 네 모서리로 펼치고서 하늘을 나누고 재었는지를 묘사하는 이야기는 실로 위대했다. (21)²⁰⁾

이처럼 천지창조의 행위는 옥수수 밭을 네모나게 만드는 것과 유사한 형태

20) “Grande era la descripción y el relato de cómo se acabó de formar todo el cielo y la tierra, cómo fue formado y repartido en cuatro partes, cómo fue señalado y el cielo fue medido y se trajo la cuerda de medir y fue extendida en el cielo y en la tierra, en los cuatro ángulos, en los cuatro rincones.....”

로 묘사되고 있는데, 칼 토베(Karl A. Taube)에 의하면, 식민지 시기 유카탄 반도에 거주하던 마야인들은 그때까지도 지구를 네모난 옥수수 밭으로 생각하고 있었다.²¹⁾ 결국 옥수수 밭은 우주적 생명력이 배태되는 시원의 장소로 여겨졌으며 자궁에서 잉태되는 인간과 옥수수는 대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포폴 부』에서는 ‘인간=자연(옥수수)=세상’이 하나의 등가적 관계를 형성하며, 이러한 사유에는 앞에서 살펴보았듯 생태학이 표방하는 삼라만상 상호간의 ‘관계적 인식’, 유기적이며 총체적인 세계 인식, 모든 생물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는 일원론적 인식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2. 애니미즘(animismo)과 가이아(Gaia) 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본 『포폴 부』

‘애니미즘’은 인간뿐만 아니라 산과 강, 하늘과 땅, 동물과 식물, 돌과 흙 등 자연의 모든 요소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1871년 영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버넷 테일러(Edward Burnett Tylor)가 종교가 애니미즘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원시문화 *Primitive Culture*』에서 이 개념과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²⁾ 주로 원시부족들 사이의 신앙적, 주술적 믿음으로 간주되던 애니미즘은 -약간의 논리적 비약을 허락한다면- 현대 과학의 한 주장인 ‘가이아(Gaia) 이론’과도 기본적인 인식을 공유하는 측면이 있다. 가이아 이론에서는 이 지구를 생물과 무생물로 구성된 거대한 유기체, 즉 하나의 초(超)생명체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1968년 이 이론을 처음 주창한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러브록(James Lovelock)은 가이아를 “지구의 생물권(biosphere), 대기권(atmosphere), 대양(ocean), 그리고 토양(soil)까지를 포함하는 하나의 복합적인 실체(complex entity)로 정의”²³⁾ 한다. 이러한 이론은 하나의 과학적 개념을 넘어, 러브록의 다음과 같은 말처럼 기존의 인간중심적인 패러다임에 대한 획기적인 성찰과 전환을 요구한다.

21) 칼 토베, 이웅균·천경효 공역, 앞의 책, 121쪽.

22)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15a0101b>

23) 제임스 러브록, 『가이아: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지구』, 홍욱희 역, 갈라파고스, 1995, 51-52쪽.

“이 가설(가이아 이론)은 자연을 반드시 우리가 정복해야만 하는 본원적 힘을 가진 대상으로 간주하는 이제까지의 독선적 견해에 대한 대안이 될 것이다.”²⁴⁾

애니미즘이나 가이아 이론에서 보면 이 세상에 생명이나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이는 곧 ‘인간만이 만물의 영장이 아니며 모든 생명체에는 나름대로 (동등한) 내재적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심층생태학적 세계관과 일치하는 것이다. 마야세계의 경전이라 할 수 있는 『포폴 부』에서 이와 같은 애니미즘적 (가이아적, 심층생태학적)가치를 담은 장면을 찾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두 쌍의 쌍둥이들의 활동, 특히 지하세계 시발바의 나쁜 신들을 물리치는 ‘우나푸와 익스발란케의 무용담’을 그린 2부에서 시발바의 주신인 운 카메(Hun Camé)와 부쿱 카메(Vucub Camé)는 지상의 공놀이로 지하세계까지 시끄럽게 하는 운 우나푸(Hun Hunahpú)와 부쿱 우나푸(Vucub Hunahpú)를 자신들의 세계로 유인하는데 이때 전령으로 네 마리의 올빼미를 이용한다. 또한 운 우나푸가 -지하의 신들에게 속아 죽임을 당해 나무에 매달려 조롱박이 된- 벨은 침으로 임신하게 된 익스퀼(Ixquic)-지하세계의 호기심 많은 여인-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벌을 받게 되지만, 그녀는 자신을 죽이려한 올빼미들을 설득하여 목숨을 구하고 지상으로 올라와 또 다른 쌍둥이 영웅인 우나푸와 익스발란케를 낳는다. 이러한 사례들은 올빼미들이 전령의 역할은 물론 인간과 같은 독자적인 판단-익스퀼의 설득으로 그녀를 살려주는-을 하는 하나의 주체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포폴 부』에서 대상화된 타자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행동하는 것은 동물뿐만이 아니다. 1부에서 나무인간의 무기력함에 분노한 창조신들이 대홍수를 불러 일으켜 그들을 파괴하는 장면에서 동물은 물론 향아리, 술, 맷돌 등과 같은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들’까지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의 어머니나 아버지, 우라칸(Huracán)이라 불리는 ‘하늘의

24) 위의 책, 53쪽.

심장'을 생각하지 않은 벌이었다. 이 때문에 세상의 얼굴이 킁킁해지고 검은 비가 밤낮으로 퍼부었다.

그러자 크고 작은 동물들과 나무들, 돌이 그들의 얼굴을 때렸다. 그리고 모두들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항아리, 프라이팬, 접시, 숟, 개, 뱀들도 일어서서 그들의 얼굴을 때렸다.**

“너희들은 우리에게 못되게 굴었지. 우리를 잡아먹었으니 이제 우리가 너희를 물어야겠어.” 그들이 키우던 개와 닭장의 닭들이 말했다.

그리고 **뱀들은** “우리는 너희가 매일매일, 밤이건 새벽이건 가리지 않고 종일 우리 얼굴을 가지고 ‘올리, 올리, 우키, 우키’ 소리를 내는 바람에 괴로움을 겪어야했어. 그러나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니 본 때를 보여 주겠어. 너희 살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주겠어.”라고 했다.

[…]

또한 **프라이팬과 숟은 말하길** “너희는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었어. 우리 입과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마치 우리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항상 불 위에서 우리를 태웠지. 이제 우리가 너희를 불태울 테니 너희도 당해봐.”라며 **모두가 달려들어 그들의 얼굴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31-32)²⁵⁾

25) 강조는 필자의 것임.

“Y esto fue para castigarlos porque no habían pensado en su madre, ni en su padre, el Corazón del Cielo, llamado Huracán. Y por este motivo se oscureció la faz de la tierra y comenzó una lluvia negra, una lluvia de día, una lluvia de noche.

Llegaron entonces los animales pequeños, los animales grandes, y los palos y las piedras les golpearon las caras. Y se pusieron todos a hablar: **sus tinajas, sus comales, sus platos, sus ollas, sus perros, sus piedras de moler, todos se levantaron y les golpearon las caras.**

- Mucho mal nos hacíais: nos comíais, y nosotros ahora os morderemos, les dijeron sus perros y sus aves de corral.

Y **las piedras de moler.** - Éramos atormentadas por vosotros: cada día, cada día, de noche, al amanecer, todo el tiempo hacían hofi, hofi huquí, huquí nuestras caras, a causa de vosotros. Éste era el tributo que os pagábamos. Pero ahora que habéis dejado de ser hombres probaréis nuestras fuerzas. Moleremos y reduciremos a polvo vuestras carnes, **les dijeron sus piedras de moler.**

[…]

Y a su vez **sus comales, sus ollas les hablaron así:** - Dolor y sufrimiento nos

문학작품에서 동물이거나 사물이 사람처럼 말을 하며 독자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를 ‘우화’ 장르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우화란 교훈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과 사물을 ‘의인화’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포폴 부』의 창조신화에 나오는 사례는 우화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마야 신화의 그것은 교훈을 주기 위한 알레고리가 아닌, 세상을 “생물권, 대기권, 대양, 그리고 토양까지를 포함하는 하나의 복합적인 실체”로 보는 가이아적 인식에 더 근접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다신론과 범신론(panteísmo)적 관점으로 본 『포폴 부』

심층생태학에서는 유일신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기독교 교리가 생태계 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자연을 정복할 권리를 부여했다는 <창세기>의 다음과 같은 구절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창세기> 1장 28/30절)

<창세기>의 내용처럼 기독교인들은 인간을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주로 보았고, 자연을 인간에게서 분리해 인간에게 종속시킴으로써 인간의 도구나 착취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근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수단으로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한 결과 오늘날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 파괴를 초래했다. 이러한 시각은 특히 미국의 역사학자이며 인류학자인 린 화이트 Lynn White가 제시해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화이트는 “창조물 중 어떤 것도 인간의 목적을 위해 봉사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갖지 않는다.”는 식의 “자연에 대한 오만”과, 자연에서 신적인 요소를 박탈하고 자연

causabais. Nuestra boca y nuestras caras estaban tiznadas, siempre estábamos puestos sobre el fuego y nos quemabais como si no sintiéramos dolor. Ahora probaréis vosotros, os quemaremos, **dijeron sus ollas, y todos les destrozaron las caras.**”

을 단순한 물질세계로 환원시켜서 자연을 가차 없이 착취하게 만든 점을 기독교 교리의 문제로 지적한다.²⁶⁾

반면, 세상 밖에 별개로 존재하는 절대적이고 개별적인 인격신이 아니라, 신과 인간, 자연이 하나의 유기체적 구조를 이루는 범신론적 사고나 각각의 대상마다 고유의 신들이 존재한다는 다신론적 사고는 생태학, 특히 심층생태학적 관점에 부합하는 것이다.

『포폴 부』에 등장하는 신들은 기독교의 유일신과는 달리 절대적이고 전지 전능하지만은 않아 가끔 실패를 겪기도 한다. 인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창조자 신들’(구쿠마츠와 하늘의 심장)은 진흙인간과 나무인간의 경우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몇 차례의 실패를 경험하는데, 이는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창조자 신들이 인간 창조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타자들-한 쌍의 늙은 점쟁이(익스피야콥과 익스무카네)와 네 마리의 동물들(산고양이, 코요테, 잉꼬, 까마귀)-에게 자문을 구하는 과정도 유일신앙의 절대적 관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인간적인 감수성을 지닌 『포폴 부』의 신들은 자신들의 피조물에 대해 두려움마저 느껴 -3부에서- 자신들이 만든 옥수수 인간의 능력을 약화시키기로 결정한다.

그들은 총명함을 선물로 받았다. 넓은 시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알게 되었다. [...] 그들의 지혜는 실로 위대했다. 그 눈은 숲과 바위, 호수, 바다, 산, 계곡까지 이르렀다.

[...]

창조주, 곧 조물주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의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볼 수 없느냐?” “듣지 못하느냐?” “너희들의 언어와 걷는 방식은 좋지 아니하냐?”

[...]

그러자 그들은 창조주, 곧 조물주에게 헌사 하였다. “진심으로 두 번, 세 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입과 얼굴을 주어 말도 하고 듣고 생각하고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느끼고, 먼 것과 가까운 것을

26) 김용민, 앞의 책, 62쪽.

구분할 줄도 압니다. 또한 하늘과 땅에 있는 크고 작은 것도 봅니다. 따라서 우리를 창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그러나 창조주, 즉 조물주는 이것을 그리 달갑게 듣지 않았다.

“우리 피조물들, 우리 작품들이 말하는 이딴 것은 좋지 않아. 모든 걸 알고, 크고 작은 것을 안다고 하다니.” 그리하여 다시 회의를 열었다.

[...]

“저들의 욕망을 좀 멈추도록 해야겠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건 좋지 않아.”

[...]

‘하늘의 심장’이 그들의 눈에 입김을 불어 보내자 마치 거울 표면에 김이 서리듯 그들의 눈도 흐릿해졌다.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가까이 있는 것만 명료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키체족의] 조상이자 시초였던 네 명의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105-107)²⁷⁾

-
- 27) "Fueron dotados de inteligencia: vieron y al punto se extendió su vista, alcanzaron a ver, alcanzaron a conocer todo lo que hay en el mundo. [...] Grande era su sabiduría: su vista llegaba hasta los bosques, las rocas, los lagos, los mares, las montañas y los valles.

[...]

Entonces les preguntaron el Creador y el Formador: - “¿Qué pensáis de vuestro estado?” “¿No miráis?” “¿No oís?” “¿No son buenos vuestro lenguaje y vuestra manera de andar?”

[...]

Luego dijeron las gracias al Creador y al Formador: - En verdad os damos gracias dos y tres veces ! Hemos sido creados, se nos ha dado una boca y una cara, hablamos, oímos, pensamos y andamos: sentimos perfectamente y conocemos lo que está lejos y lo que está cerca. Vemos también lo grande y lo pequeño en el cielo y en la tierra. Os damos gracias, pues, por habernos creado..

[...]

Pero el Creador y el Formador no oyeron esto con gusto.

- No está bien lo que dicen nuestras criaturas, nuestras obras: todo lo saben, lo grande y lo pequeño, dijeron. Y así celebraron consejo nuevamente los Progenitores.

[...]

- Refrenemos un poco sus deseos, pues no está bien lo que vemos.

옥수수 인간과 창조주 사이의 대화를 다룬 이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마야는 옥수수²⁸⁾ 경작을 중심으로 하는 옥수수 문화권의 고대문명²⁹⁾이었던 만큼 옥수수와 관련된 신화와 전설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창조 신화에 녹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옥수수를 주식으로 사용하는 것과 옥수수로 인간을 만드는 것은 층위가 다른 것으로 단순한 상상의 세계 차원이 아닌 인식론적 지평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포폴 부』에서 옥수수로 인간을 만든 것은 그들의 자연관이 인간과 식물이라는 차별적 관계 혹은 이항대립적 관계를 넘어 토포스(topos)를 공유하는 공존의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생태학적 사유의 상징으로 간주할 수 있다. 게다가 옥수수로 만든 인간의 능력을 시험한 신들이 그들의 피조물에 대한 과도한 능력으로 인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인간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대목-“하늘의 심장’이 그들의 눈에 입김을 불어 보내자 마치 거울 표면에 김이 서리듯 그들의 눈도 흐릿해졌다.”(107)-은 그리스 신화 『신통기』의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진흙으로 만들고 아테나는 그 진흙 형상에 숨결을 불어넣는다.”는 장면과 기독교의 창세기 2장 7절

[...]

Entonces el Corezón del Cielo les echó un vaho sobre los ojos, los cuales se empañaron como cuando se sopla sobre la luna de un espejo. Sus ojos se velaron y sólo pudieron ver lo que estaba cerca, sólo esto era claro para ellos. Así fue destruida su sabiduría y todos los conocimientos de los cuatro hombres, origen y principio[de la raza quiché]."

- 28) 옥수수의 기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멕시코 기원설, 안데스 기원설, 아시아의 히말라야 기원설(Paliwal, R.L. "Origen, evolución y difusión del maíz" en *El maíz en los trópicos: mejoramiento y producción*, Colección FAO: Producción y Protección Vegetal (FAO), no. 28. Roma, 2001. pp. 5-11.)-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메소아메리카의 일부였던 멕시코에서 기원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약 5000년 전 원시 부족의 혈거 생활의 흔적에서 옥수수의 존재를 확인한 것에 기인한다.(Wilkes, H.G. "Mexico and Central America as a centre for the origin of agriculture and the evolution of maize." *Crop Improv.*, 6(1): 1-18.1979)
- 오늘날 현대인이 소비하는 옥수수는 종자(種子) 격인 테오신테(Teocinte)에서 개량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옥수수의 재배가 시작되면서 일정한 지역에서 동일한 음식을 먹고 향유하는 문화권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29) 오늘날 멕시코의 중남부와 중미의 일부(과테말라 온두라스 등)를 포함하는 문화 지역을 지칭하는 메소아메리카 문화권은 고대 문명인 올메카(Olmeca), 아스테카, 마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옥수수 문화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는 부분과 비교할 수 있는 장면이다. 즉 질료로 형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호흡(기독교)과 아테나의 숨결(그리스 신화)이 불어넣어져야 된다는 사고에 비해 『포폴부』는 오히려 입김을 눈에 불어넣어 가까이 있는 것만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능력을 제한하고 한계를 규정짓고 있다. 이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생태계 구성 요소의 일원으로 격하시킴으로써 후세의 생태사회를 지배/피지배의 형태가 아닌 조화로운 심층생태학적 세계의 일원으로서의 인간과 자연의 공존관계를 상정하고 있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유일신앙을 강조하는 종교일수록 타자에 대한 배타성이 강한 경향이 있다고 한다.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오랜 전쟁과 반목의 역사는 이를 반증하는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이다. 신-인간-자연으로 서열화 된 계급질서는 ‘신의 인간에 대한 심판’, ‘인간의 자연에 대한 착취’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된다. 반면, 인간화된 신, 인간 역시 다른 생물들과 평등하고 동등한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상은 상대적으로 ‘공존’의 가능성을 열어 놓기 마련이다. 최소한 심층생태학적 관점에서는 유일신 교리보다 다신교적, 범신론적 가치관이 훨씬 더 친화적임을 알 수 있다.

III. 맺는 말

오늘날 문학의 여러 경향 중에서 ‘생태문학’만큼 사회적 요구를 절박하게 담아내고 있는 것도 없다. 그리고 ‘생태문학’처럼 그 문학적 함의가 계층과 국가, 인종과 성별을 초월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경우도 드물다. 이는 이 문학이 경고하고 있는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의 폐해가 부자와 빈자, 서양인과 동양인, 기독교인과 이슬람교도를 가리지 않고 지구상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생태문학’은 특정 집단의 정서나 심미적 취향을 대변하는 미학적 속성보다는, 인류 공동의 현실적 우려와 극복의 대안을 담아내고자 하는 ‘사회적 속성’이 강한 문학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학’이란 용어에 내재된 미학적

의미보다는, ‘생태’에 함축된 사회적 혹은 세계관적 관점을 우선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고에서 살펴본 『포폴 부』는 생태문학 혹은 심층 생태학적 관점에서 유토피아적 세계를 일정 부분 구현하고 있는 작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

2009년 11월 개봉한 롤란트 에머리히 감독의 영화 <2012>는 마야력에 근거한 지구멸망설에 발상의 근거를 두고 있다. 비록 영화와는 달리 지구의 최후는 현실화되지 않았으나 고도로 발달한 것으로 알려진 마야의 천문학과 과학기술³⁰⁾은 실제로 2012년 이전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책 『빼앗긴 대륙, 아메리카』의 저자인 로널드 라이트(Ronald Wright)는 마야에 대한 서구의 편견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기술 운운하면서 고전기 마야를 ‘석기 시대’로 보는 관점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 아닐 수 없다. 마야에는 청동기는 거의 또는 아예 없었고, 철기도 없었으며, 바퀴의 원리도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문명과 하드웨어 기술을 거의 동의어로 이해하는 유럽인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역설이다. 그러나 석기에서 청동기로, 청동기에서 철기로 기술이 발전했다는 ‘공식’은 적어도 아메리카 대륙에 관한 한 별 의미가 없다. 그런 공식은 유럽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는 유용할지언정 마야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아무 쓸모가 없고 오히려 해롭기까지 하다. 늘 그렇듯이 잘못된 전제는 올바른 이해를 가로막기 때문이다.³¹⁾

로널드 라이트의 이러한 견해를 『포폴 부』에 그대로 적용해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라고 본다. 『포폴 부』를 신화적 관점에서 아메리카 인디오 부족의

30) 마야인은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이 몰랐던 0의 개념과, 위치에 따라 수의 크기가 달라지는 위치 기수법을 만들어냈으며, 이러한 지적 도구를 이용해 100만년, 수십억 년까지 정확히 계산해 낼 수 있는 마야역법을 만들어냈다. 또한 그들은 태양년(지구의 공전주기: 365일 5시간 48분 46초)를 정확히 계산해 냈고, 평균 태음월(달의 공전주기: 평균 29일 12시간 44분 2.8896초)도 원자시계로 측정한 것과 비교해 오차율 24초 이내로 정확히 계산해 냈으며, 금성과 회합주기도 연 오차율 14초 이내로 정확히 계산해 냈다. 로널드 라이트, 『빼앗긴 대륙, 아메리카』, 안병국 옮김, 이론과 실천, 2012, p. 101.

31) 위의 책, p. 102.

전승설화 내지 집단무의식을 수록한 과거의 고서(古書)로만 보는 것은 서구적인 편견일 것이다. 최소한 생태학적 관점에서, 이 책은 현대의 과학개념인 가이아이론을 비롯하여 오늘날 화두로 부각된 심층생태학의 인식론적 지문이 풍부하게 묻어있다. 이 책에는 현재적인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가치와 의의가 담겨 있으며, 우리가『포폴 부』에 내재된 생태학적 메시지를 무시할 경우 언젠가는 제대로 된 <2012>년을 실제로 맞이하게 될 지도 모른다.

❖ 참고 문헌

- 강규한, 「생태비평. 자연문학의 변주인가, 문학연구의 새로운 지평인가」, 『안과 밖』 22호, 2007.
- 김용민, 『생태문학. 대안사회를 위한 꿈』, 책세상, 2003.
- 김옥동, 『생태학적 상상력』, 나무심는사람, 2003.
- , 『적색에서 녹색으로』, 황금알, 2011.
- 로널드 라이트, 『빼앗긴 대륙, 아메리카』, 안병국 옮김, 이론과 실천, 2012.
- 박주식, 「생태비평」, 『안과 밖』 14호 영미문학연구회, 2003.
- 정경민, 「생태문학 연구의 동향과 전망」, 『한국문화연구』 11호, 2006.
- 제임스 러브록, 『가이아: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지구』, 홍욱희 역, 갈라파고스, 1995.
- 칼 토베, 『아스텍과 마야신화』, 이응균 · 천경효 공역, 범우사, 1998
-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15a0101b>.
- Anónimo, *Popol Vuh*,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2008.
- Bender, Frederic L., *The Culture of Extinction : toward a Philosophy of Deep Ecology*, New York: Humanity Books, 2003.
- Moran, Emilio F., *People and Nature : An Introduction to Human Ecological Relations*, Malden: Blackwell, 2006.
- Paliwal, R.L., “Origen, evolución y difusión del maíz” en *El maíz en los trópicos: mejoramiento y producción*, Colección FAO: Producción y Protección Vegetal (FAO), no. 28, Roma, 2001.
- Recinos, Adrián(ed.), *Popol Vuh*,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2008.

Sessions, George (ed.), *Deep Ecology for the Twenty-First Century*, Boston: Shambhala, 1995.

Wilkes, H.G., “Mexico and Central America as a Centre for the Origin of Agriculture and the Evolution of Maize,” *Crop Improv.*, 6(1). 1979.

❖ ABSTRACT

The Ecological Utopia of the World in Mayan *Popol Vuh*.

Jeon, Yong-gab · Hwang, Soo-hyun

This paper closely examines *Popol Vuh*, regarded as the Bible of the Maya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eep Ecology. Deep ecology is a concept born out of the criticisms on the existing environmental movements as superficial, and encourages the moral and ethical change of the man's attitude towards the nature, inevitably becoming "metaphysical" in character. As such the Deep ecology advocates the break away from the anthropocentrism, the dichotomous thinking and the rationalism of the modern times. *Popol Vuh* is a text that contains such concepts and it requires an analysis from the Deep ecological perspective beyond the existing framework of the study that simply focuses on mythological elements.

Key Words

Popol Vuh, ecological view, deep ecology, Maya

논문접수일: 2016년 02월 10일

심사완료일: 2016년 03월 07일

게재확정일: 2016년 03월 10일